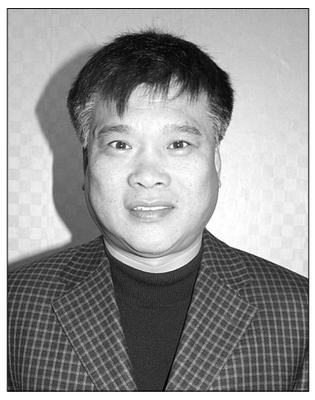
2008 새해설계 ⑤ 포천시복싱협회 회장 이 정 택

자원 풍부한 포천시 학교 복싱부 창단해야

체육이 발전하고 시스템 갖추어진 나라가 선진국



"2007년도에는 중등부 경기도 신인 2명 우승, 경기도 소년체전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동메달 획득, 전국대회 금메달, 경기도체전 2부리그 종합2위 달성으로 성적이 아주 좋았다."

포천시복싱협회 이정택(47·**사진**) 회장은 포천시 어룡동 출신으로 복싱의 불모지인 포천에서 복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복싱협회 설립동기는 협회가 없으면 각종 대회에 참가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적인 지원과 선수관리를 위해서 협회를 설립했다.

이 회장은 "포천에서 복싱이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다"며 "복싱을 한다고 과거처럼 수업을 전폐하지 않고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 운동을 하고 등교하기전 1시간씩 로드웍을 실시하며 체력단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체력단련도 하고 선수로서 기술도 익힐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입문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링 위의 공기와 링 아래의 공기가 너무 달라 링 위에 오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발굴한 선수는 경기체고에 입학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포천일고에 입학하기도 했다. 문제는 학교체육에 있다. 학교에서 복싱부를 창단만 한다면 큰 비용들지 않고 고구려복싱클럽 관장이 포천시복싱협회 전무이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싱클럽에서 연습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복싱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복싱부를 창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회장은 "지도자와 선수육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복싱부가 창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에 관내 중학교에 복싱부가 창단 된다면 합숙을 안하고 엄마의 따뜻한 밥을 머고 아침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학교에서 정규수업에 참석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장은 1982년 MBC신인왕 출신으로 학사출신 복서로 인기를 독차지했으며 경희대학교를 졸업했다. 협회 인준전부터 이 회장은 복싱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협회장을 맡아 왔다고 한다.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는 경기도체전과 전국신인대회, 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전등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협회인준을 받은 단체로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켜 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올 개최되는 체육회장배 대회에 출전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은 "엘리트 자원 육성차원에서 복싱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학교체육을 통해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신문사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 회장은 "체육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포천시 복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반지에 새겨진 글귀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장

유대 미드라시(midrash)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우두머리 보석 세공인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매우 큰 승리를 거두어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그 글귀가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명을 받은 보석 세공인은 명령대로 곧 매우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세공인은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 주고 동시에 그가 낙담했을 때! 북돋워 드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써 넣어야 할까요?"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넣으시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가 낙심 중에 그것을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다 순간이요, 곧 지나가 버리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성공이나 승리의 순간에도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실패나 패배의 순간에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행복이나 슬픔에 빠진 순간에"이것 역시 지나가 버립니다"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무력감을 훌훌 털고 추스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의 011-342-5834)

신기술 보급 확대 잘 사는 농업인 만들기

2008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월 28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08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을 120여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2008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은 생활개선, 식량작물, 경영축산, 원예특작 분야 등 31개 사업 97개소에 총 사업비 21억3천여만 원이 투입된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이응규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지도시범사업 농가는 주어진 사업을 성실히 실천해 인근 농업인들의 영농기술 보급교육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FTA체결 등 국제화에 대비한 신 농업기술을 이용한 소득제고 사업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은 지역별 쌀 생산단지 5개지구 416ha를 조성, 고시히카리 품종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쌀 수입 개방 확대와 쌀 소비감소 등 브랜드 쌀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월 28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08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을 120여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

선정된 화장실 상패 및 상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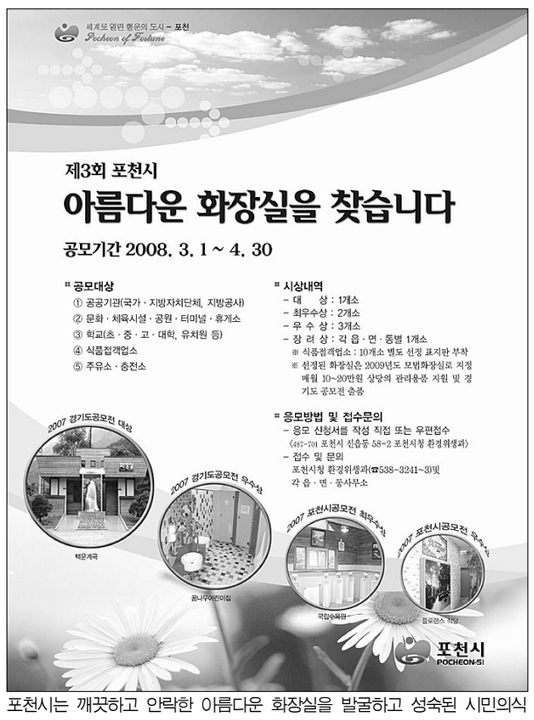
포천시는 깨끗하고 안락한 아름다운 화장실을 발굴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격조 높인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3회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포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화장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공원, 터미널, 휴게소 ▶학교(초·중·고·대학 및 유치원) ▶식품접객업 ▶주유소·충전소 등 5개 분야로 나뉘며, 화장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서면 심사를 거쳐 2배수를 선정한 다음 2차 현장 정밀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20개소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패 및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1년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원하여 화장실의 청결과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며 또한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 포천시 대표 화장실로 공모에 응모할 자격이 부여된다.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은 올해로 3번째 개최하는 화장실 관련 공모전으로 포천시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모전에 응모할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화장실 사진(외관 및 주요 실내 시설 등)을 첨부하여 포천시청 환경위생과 또는 각 읍·면·동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깨끗하고 안락한 아름다운 화장실을 발굴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격조 높인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3회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디서나 신청가능

지난 2월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도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 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까지로 확대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국공유지 대부계약 3년으로 연장

시민편의 증진시책 일환으로 추진

포천시는 그 동안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 추진해 왔으나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3월초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지에 대해서도 연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 동안 장기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고권을 방지하여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자 대부기간을 2년까지로 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2년마다 시청을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불멘소리가 잔재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금년부터 대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게 된 계기는 주민편익 증진시책의 일환으로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천시의 대부기간 연장은 시민편의 증진 및 행정신뢰도의 향상을 위한다는 십재인 시장권한대행의 주민편익 사업의 취지가 적극 반영되고 있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서 시민들의 귀감을 사고 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부서(☎ 538-2097—9)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